

지방자치·종합

광주시의회 남북화해 연구모임 출범

시·구의원 34명 참여... 지방의회론 전국 최초

대표에 문상필 시의원

광주지역 시의원과 구의원,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남북화해를 연구하는 모임이 출범했다. 지방의회 차원에서 대북관련 연구모임이 출범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어서 앞으로의 활동이 주목된다.

남북 대결구도를 극복하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출범한 '남북 화해와 교류활성화 연구모임'(대표 문상필 시의원)은 20일 오전 시의회에서 출범식 겸 첫 수업을 가졌다.

이날 연구모임에서 참석자들은 대북관계 전문가인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 연구실장을 초청해 '남북관계 전환에 대한 진보개혁진영의 선택' '김대중의 평화사상과 한반도'란 주제 강연을 들었다.

광주시의회 주도로 추진된 연구모임에는 시의원 21명과 북구, 서구, 남구, 광산구의원 13명을 비롯한 6·15 공동위 광주·전남본부 관계자 등 시민단체 10명 등 총 44명이 참여했다.

연구모임은 앞으로 매주 1차례 또는 한 달에 1~2차례 남북관계에 정

통한 인사들을 초청해 강연을 듣고 모임 참가자들의 역할분담을 통한 연구와 토론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연구모임은 특히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하는 데 있어 지방의회 차원과 자치단체 남북교류 사업 등의 역할도 모색할 방침이다. 또한, 북한의

문화와 경제, 정치 등에 대한 공부와 함께 개성공단 방문 및 분단 현장을 둘러보는 통일 기행 등도 준비중이다.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문상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들도 남북화해와 협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며 "지난 10년간 민주정부의 고향인 광주와 5·18 정신을 간직한 광주가 경색된 남북관계를 극복하고 남북화해의 손길을 가장 먼저 내밀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모임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의원 21명과 광주지역 구의원 13명을 비롯,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남북 화해와 교류활성화 연구모임'(대표 문상필 시의원) 회원들이 20일 광주시의회 회의실에서 첫 모임을 열고 백학순(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교수의 초청 강연을 듣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시민과 소통 강화 '현장 속으로'

강운태 시장, 경로당·침수지역 찾아 민원 직접 수렴

민선 5기 2년 차에 접어든 강운태 시장이 시민들과 접촉을 늘리며 '현장 행정'에 주력하고 있다.

취임 이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국책사업과 국내의 기업 등의 유치, 민선 5기 정책 방향 정립 등에 매진하면서도 '시민과의 대화'는 꾸준히 참석했던 강 시장이 올 하반기부터는 현장 방문을 늘리며 소통 강화에 나선 것이다.

광주시는 20일 "강운태 시장이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제기된 민원 현장은 물론 대형 공사장이나 전통시장 등에 매주 1~2차례씩 나가 직접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행정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시민과의 대화' 안건으로 다뤄졌던 '서구 쌍촌동 시영아파트 내 비좁은 송죽경로당'과 관련 지난 18일 경로당을 직접 찾아 올해 안으로 예산을 확보해 증축할 것을 지시했다. 또 지난 15일에는 집중 호우로 인해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광산구 북산동 황산마을 오정순씨 가족과 마을 주변



강운태 시장이 지난 18일 광주 서구 쌍촌동 시영아파트 내 송죽경로당을 방문,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광주시 제공)

을, 지난 4일에는 어룡초등학교 통학로 개설 현장을 직접 찾았다. 21일에는 인근 주민들이 시민휴식공간 설치를 건의한 광산구 신창동역사근린공원(반촌제)에 갈 예정

이다. 현장 방문이 이처럼 잦아지는 것은 시청사 내에서 이뤄지는 시민과의 만남은 민원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다, 사업이나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시민들과 '소통 과정'이 필요하다는

강 시장의 판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과의 대화를 거처면서 공식사회에 민원을 대하는 태도가 크게 달라졌으며 대부분의 민원은 행정과 주민이 상호 이해하면 충분히 해결가능한 것으로 인식됐다"며 "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면서 주민 만족도가 높아지고 행정도 그만큼 주민을 존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기기자 chadoll@kwangju.co.kr

뿔난 남북경협 업체들

10개사 손해배상 소송 준비... 정부에 공동대응

지난해 천안함 사건 이후 나온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인 '5·24조치'로 경제적 피해를 본 남북경협 업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공동행동에 돌입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관련업체들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 투자업체, 개성공단 입주예정 기업, 북한 내륙교역업체의 대표 10명 가량이 피해대책과 관련해 전날 오후 서울 시내에서 모여 정부를 상대로 법적대응 등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한 참석자는 "통일부를 상대로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가장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고 통일부 항의방문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북 위탁가공업체가 개별

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금강산, 개성공단 등 전반적인 남북경협 관련 업체들이 조직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공동행동에 나서기는 5·24 대북조치 이후 처음이다.

현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업체는 대북 위탁가공업체 2곳 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북경협 피해업체들은 내주에 한 차례 더 모여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북업체 관계자는 "10개 정도 업체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내달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나오는 대북정책 메시지를 평가해보고 통일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철뉴스

고흥 5개지구 개발촉진지구로

고흥-우주항공 남열-건강 휴양 도양-조선산업 구암-관광레저 거금-친환경도시

고흥군 남열과 도양 등 5개 지구 59.5km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지역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고흥군에 따르면 지정면적은 고흥군 전체 면적의 7.6%에 해당하며 지난 2009년 지구지정 신청 이후 2년여 만에 최종 확정됐다.

이들 지구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자원을 이용, 관광휴양산업과 산업단지, 항공기술연구센터 등 지역 특화산업 지구로 육성된다. 고흥남 지구(21.04km)는 우주항공 연구개발 시설 집적화로 우주항공 산업과 관광산업

을 연계한 청정 자연과 미래첨단산업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개발, 육성된다.

우주해양리조트 특구로 지정된 남열지구(4.44km)는 고흥-여수 연륙연도 사업과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레저와 건강 휴양 공간으로 조성된다.

도양지구(6.34km)는 중소형 조선산업과 협력업체 배후 주거단지로, 신세기리조트 조성사업인 구암지구(9.99km)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과 연계한 관광레저시설 지구로 개발된다.

거금지구(17.69km)는 해양관광을 활용한 일주 경관도로를 바탕으로 자전거도로, 생태 숲 조성, 신재생 에너지 테마파크 등의 친환경 도시로 육성된다.

이 사업에는 2019년까지 국비와 민자 등 모두 1조2800억원이 투입돼 16개 세부사업이 추진된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uj@

한국, 28번째 민항기 개발국 됐다

4인승 소형항공기 시험비행 성공

우리나라가 민항기 개발국의 반열에 진입했다. 국토해양부는 20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4인승 소형항공기 '나라온(KC-100)' 시험비행 행사를 개최했다.

한국은 이로써 세계 28번째 민항기 개발국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작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항공 여객수송량 세계 15위, 화물수송량 세계 3위, 국가 항공안전등급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민항기 제작 부분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해왔다. 군용기는 이미 개발에 성공해 수출까지 하고 있으나 민항기는 선진국에 비해 기술과 인프라가 뒤져 지금까지 레저용 경량항공기부터 중·대형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모두 수입에 의존해 온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2008년부터 한국항공우주산업, 항공우주연구원, 테크항공, 아스



트 등 산학연 협력으로 항공선진화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 이번에 첫 결실을 얻게 됐다.

이날 선보인 소형항공기 시제기는 기체의 90% 가량이 순수 국내 기술을 통해 제작됐으며, 총 이륙중량 1633kg의 4인승 단발기다. 최대 속도는 시간당 389km, 최대 비행거리는 1850km로 일본 전지역과 중국 주요도시, 동남아 일부 지역에 도달할 수 있고, 고도 7600m까지 비행이 가능하다.

판매가격은 약6억원에 책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자가용 뿐 아니라 조종사 비행교육 훈련, 레저, 사업 등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철뉴스

롯데제이티비 여행상품 문의 1577-6511. 롯데제이티비 대리점 모집 062) 228-6644

중국 파격특가 1. 상해/소주/동리+2층버스타티투어 419,000원. 상해/황산/삼정산/항주 629,000원.

중국 파격특가 2. 북경 499,000원. 초록메리터트 북경,만리장성+용경협/금면왕조 419,000원.

일본 파격특가 3. 부산/제주/제주+제주 199,000원. 나눈 특가다 보라카이(타이즈) 799,000원.

유럽. 터키완전일주 9일 1,890,000원. 동유럽 4국 9일 3,190,000원.

동남아. 롯데제이티비 인기상품 시리즈. 09/10년 오픈 특급 리조트.

미주. 미국동부7일/보스턴 8일/캐나다 10일 2,490,000원. 호주 뉴질랜드 북섬+타우포 8일 2,290,000원.

중국. 장춘 백두산 장백폭포+두만강 4일 1,490,000원. 홍콩 자유여행 3일 279,000원.

상당 및 문의처: 롯데백화점(광주점/전주점) 롯데마트(정당점/상무점/일드점점/수원점/여수점/여천점/전주점/전주직점점/군산점) 전주 중앙점 전북 익산점 광주 북구점 롯데제이티비여행상품 구매문의 02)3782-3025